“강원·선원 교육에 조계종 미래 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아사리 추계학술대회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각국 불교의 승가교육 현황을 살피고 한국 승가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각 국의 승가교육 및 승가상 정립’을 주제로 교육아사리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중국·일본·대만·티베트·미얀마·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 불교의 승가교육을 분석하고 한국 승가교육과 비교하는 소논문들을 발표했다.

‘미얀마 승가교육 현황’을 발표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자목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빠알리어를 기본으로 한 교학과 위빠사나 수행의 대중화에 있음을 전제하며 “미얀마 승가교육은 시험, 자격제도는 있으나 정형화된 교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스님에 따르면 승가교육은 오로지 불교만 공부하고, 3단계 자격시험이 있다. 기본 과정을 마치고 합격하면 법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자목 스님은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교학을 배우는 것은 미얀마 승가교육에서 본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국제불교영어학과 교수 경문 스님은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현황과 그 고찰’을 발표했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스리랑카 승가교육은 전통강원에 해당하는 ‘삐리웨나’가 있으며, 켈라니야 대학교 등 일반대학서도 승가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중심은 전통교육의 ‘삐라웨나’가 아닌 일반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경문 스님의 설명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23일 ‘각 국의 승가교육 및 승가상 정립’을 주제로 교육아사리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티베트·미얀마 등
세계 각국 승가 교육 분석해
한국 승가 교육 현실과 비교
효율적 승가 교육 방향 고찰
김방룡 “講·禪 겸수 모색을”

경문 스님은 “2000년이 넘는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길을 모색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면서 “19세기 이후 서양 근대의 실증적·객관적 학문 체계와 방법론을 기존 승가교육 시스템에 도입했고, 이는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중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오늘날 스리랑카 승가가 현대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키우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실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경문 스님은 “한국은 다문화, 세계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승가교육은 조선시대의 불교인식에 멈춰있다”고 지적하며 “세계불교의 흐름에서 변방에 밀려나지 않고 지지 받을 수 있는 한국불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근거하고 현대적 가치가 반영된 효율적 승가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한국선학회장)는 ‘조계종 승가교육의 불변(不變)과 변(變)’ 발제를 통해 “불변의 가치가 변화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현대적 승가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성과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이 현대적이고 세계적이라는 생각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통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선원’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의 현대식 대학교육을 통해 전통 승가교육이 갖고 있는 시대·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되, 강원과 선원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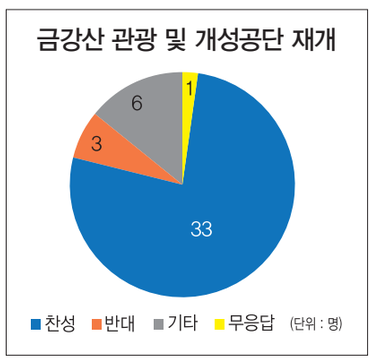
이어 “강원교육은 한문 풀이가 아닌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해야 한다. 선원에서는 살아있는 활구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강원과 선원의 별립이 아닌 강학과 선 수행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원과 선원을 살려야 조계종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역직 97% “남북불교교류 필요”

민추본, 교역직 스님 설문조사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 압도적
통일에 관심 높지만 실천 부족
“기금 위해 수익 사업 필요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준이며 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통일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방북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단 차원의 통일인식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가 10월 19일 공개한 ‘조계종 교역직 스님 대상 통일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대상은 44명에 불과하지만 응답자인 스님 모두가 종단에서 종무행정 및 관련 소임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해소될 경우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해 종단 대북교류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인식 항목이다. 응답자인 44명의 스님 가운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찬성한 스님이 33명으로 확인됐다. 부분찬성 등 기타를 선택한 스님이 6명, 반대가 3명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교역직 스님은 남북 간 대표적인 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확인됐다. 스님들은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35명,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8명으로 집계돼 100%에 가까운 43명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선택한 스님은 단 1명이었다.

남북불교 교류를 위해 종단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반수인 22명이 ‘불교계 대북사업 기구 및 단체 활성화’를 꼽았다. 현재 조계종의 대북 관련 기구는 민추본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민추본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스님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반해, 실질적으로 통일 관련 교육을 받거나 북한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적은 수치로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스님이 41명,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43명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스님들 중 평화 및 통일교육 경험이 있는 스님은 25명에 불과했다.

민추본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가 종단 소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샘플링조사로 진행됐음에도, 통일에 대한 인식 및 남북불교교류와 통일교육 등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 유의미하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 민추본이 남북정세 등 단편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교육이 많았다는 점에서, 설문 결과를 염두해 앞으로는 인식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추본은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수의 불자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승려복지회, 16일 완료 보고
의료비 등 현황 파악 한눈에
복지기초자료도 전산화 완료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조계종 종단 스님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승려복지 통합관리프로그램’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행정 관리역량 강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는 10월 16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통합관리프로그램’의 완료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입력을 시작했다.

‘승려복지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의료비·요양비·국민연금·건강보험·건강검진·예방접종비 지원 등 스님들의 복지지원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구축됐으며, 지난 7월에 도입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현황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설문조사 등으로 확보한 스님들의 복지 기초자료도 전산화해 복지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됐다.

‘승려복지 통합관리프로그램’은 올해 연말까지 자료 입력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승려복지회는 내년 중으로 지난 10년간 승려복지 지원자료를 입력하고, 교구본사 승려복지 담당자에게도 통합관리 프로그램의 정보를 네트워크로 제공해 효율적 승려복지 행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승려복지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승려복지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종단은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안정적인 노후 수행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승려복지제도는 스님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화쟁위 ‘하이 화쟁’ 발간

종립학교 종교수업 교재 활용

조계종 종립학교 학생들이 ‘화쟁’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 안내서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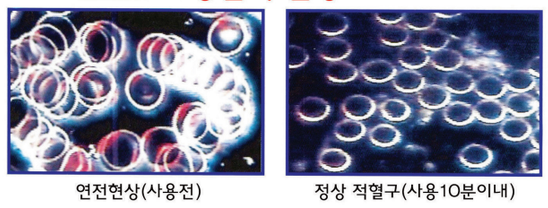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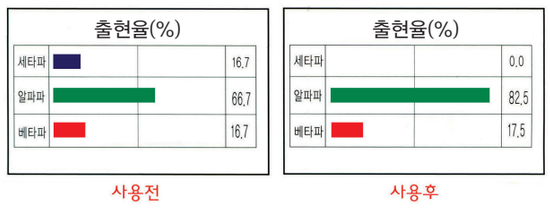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최근 “청소년용 화쟁안내서 ‘하이, 화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이, 화쟁’은 조계종교법사단과 화쟁위원회가 공동제작한 책으로, 지난해 7월 첫 간담회 이후 3차례의 워크숍을 비롯한 1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하이, 화쟁’은 종립학교 종교수업 용도로 제작한 교재다. 10월 말부터 종립학교 5개 학교(동대부여중, 동대부여고, 광동고, 의정부광동고, 동대부영석고)에서 시범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이, 화쟁’은 한 학기 수업분량으로 제작됐다. △PART1. 갈등 개념 알기 △PART2. 갈등 해결 방법 △PART3. 갈등 조정 실습 등 총 15강좌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화쟁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화쟁의 정신이 이어지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되는 데 ‘하이, 화쟁’이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하이, 화쟁’이 향후 청소년 화쟁 가이드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